

출시 1년 카카오택시 온오프라인 연계 성공

국내 시장점유율 1위... 해외진출·유료화 검토

모바일 플랫폼이 우리나라의 택시 운행 및 이용 행태를 바꿨다. 도로변에서 직접 택시를 잡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이런 변화는 카카오택시 덕분이다. 카카오택시가 이날 31일 출시 1년을 맞는다. 카카오택시는 지난해 2월 13일 기사 앱을 출시한 후 3월 31일 이용자 앱을 내놓았다.

카카오택시는 국내 사용자 3800만명을 거느린 카카오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플랫폼 문화의 문을 열었다.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이었다면 카카오택시는 오프라인 이동을 모바일로 연결하는 교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은 최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출시 3일만에 서버가 잠시 멎은 일이 있었고 날씨와 시간대 별 수요 예측이 실제와 다른 상황도 많이 비재했다"며 "1년 동안 빅데이터가 많이 쌓인 덕분에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정주환 부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 무대에 올라 카카오택시의 성공 사례를 알리기도 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기업 카카오와 카카오택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MWC에 참가했다"며 "그사이 미국에서 해외 진출 문의

가 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제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첫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이었던 카카오택시 안착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택시 기사와 승객 대상의 전천후 프로모션, 유명 연예인을 기용한 텔레비전 광고 집행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했다.

카카오택시가 출시될 즈음에 SK플래닛 '티맵택시'와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택시' 등 대형 경쟁자가 등장했다. 앞서 출시된 리모택시와 백기사를 비롯한 중견 플랫폼사업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카카오택시는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현재 국내 플랫폼 최고감자로 올라섰다. 국내 이용자 3800만명을 거느린 카카오 플랫폼 덕분이다. 카카오택시는 출시 10개월만에 20만명 이상의 기사 회원 확보, 하루 70만건 호출수, 누적 7200만건의 호출수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시장 점유율 1위이지만 사업 자체로만 보면 적자다. 콜비가 없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구조다.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택시의 다양한 수익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노후를 발판으로 지난해 11월 고급 택시 '카카오택시 블랙' 운영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에는 연 수익 수천억원이 예상되는 대리운전 택시 앱 '카카오 드라이버'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택시는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현재 국내 플랫폼 최고감자로 올라섰다. 국내 이용자 3800만명을 거느린 카카오 플랫폼 덕분이다.

외재차로 운영되는 카카오택시 블랙은 기본 요금 8000원, 택시 요금을 카카오페이로만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꾀했다. 그러나 고급 택시는 여전히 인지도와 이용 건수가 낮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북수의 고급 택시 기사들은 "연말 송년회 시즌에는 일반 택시 잡기가 어려워니 대체안으로 고급택시가 인기를 끌었다"며 "지금은 하루에 콜을 받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 블랙 활성화를 위해 예약제, 대여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택시의 유료화도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카카오택시가 콜비를 받으며 유료 모델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카카오 측은 "콜비를 받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료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형태와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정주환 부사장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카카오택시 어떻게 돈 버냐'이다. 구체적인 수익 모델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택시는 워낙 오래된 운송 서비스이고 요금체계가 규격화되어서 무언가를 새롭게 적용하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7개 금융공기업이 금융권의 사측 협의회에서 탈퇴하고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는 산업·기업·수출입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7개 공기업은 현재의 산업별 교섭 체제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의 합의를 통한 성과주의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융공기업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부의 경영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빨리 도입해야 직원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사용자협의회 회의의 브리핑은 현장을 찾은 금융노조 간부들의 항의로 취소됐다. /인진수 기자

금융주주 일괄변경 서비스 이용자 2만명 넘어

금융감독원은 도입 2개월 된 금융주주 한번에 서비스 이용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주주 한번에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등록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주 일괄변경서비스'로 지난 1월18일 도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비스는 지난 25일까지 모두 2만195명이 이용, 하루 평균 439건의 주주 변경이 이뤄졌다.

주주 일괄 변경은 절반 이상이 은행에서 진행했고, 74%의 이용자는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평균 18.9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주 변경 접수를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1일 전국 우체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주주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산뜻한 컬러입힌 IT기기 열풍

핑크, 블루 등 라인업 '유행'

IT업계에 컬러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적인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이 2016년 트렌드 컬러로 분홍색 계열의 '로즈퀸즈', 하늘색 계열의 '세라니티'를 선정하면서 이를 발 빠르게 작용한 파스텔 색상의 IT기기도 주목받고 있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개성보다는 은은한 세련미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블랙, 그레이, 화이트 등 무채색이 대세이던 노트북도 사용자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의 노트북 'Lie'는 핑크, 블루, 화이트 등 화려한 컬러 라인업으로 돌아왔다. 슬림한 두께와 1.34kg의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다. 최대 9.5시간 지속되는 배터리로 야외에서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

HD의 고화질 디스플레이는 물론 2W 출력의 스피커 2개로 크고 풍성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탐블러 모양의 IC전자 '포터블 스피커 360'은 부드러운 파스텔톤 색상과 함께 독특한 외형부터 눈길을 끄는 이색 제품이다.

한 손에 쏙 잡히는 슬림한 디자인에 상단을 터치하면 스피커와 조작용이 올라온다. 제품명처럼 둥근 디자인 덕분에 어느 방향에서도 고음질류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최대 2개의 스마트기와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2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스마트폰 충전기인 마이크로 5핀 충전기로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인진수 기자

"올 경제성장률 3% 하회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연초 전망했던 성장률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0%로 하향조정 한 바 있다. 한은은 다음달 19일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하회 가능성의 요인으로는 "국내 경제에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올 1분기 성장세가 연초 예상보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소비심리도 조금씩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

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며 "문제는 2분기 이후의 성장경로가 어떻게 될지인데 여러 경제지표를 면밀히 짚어본 뒤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연 1.50%의 금리수준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이 총재는 "저성장,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완화정도가 덜하다고 해서 우리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만으로는 저물가와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과 경쟁력 향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진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경력사원 모집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4월 4일까지 경력직원을 공개 모집한다.

카카오뱅크 출범을 앞둔 한국카카오(주)는 IT, 수신, 여신, CSS, 리스크관리, 전략, 재무·회계, 외환, 제휴상품, 마케팅, 홍보, CRM, 빅데이터, 채널기획, 디자인, 고객센터,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준법지원, 카드 등 총 21개 분야에서 경력직원을 선발한다.

공용요건은 경력 총 5년 이상 및 개별 해당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IT 개발자는 우대받는다.

근무지는 경기도 분당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준비법이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카카오는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수평적 기업문화를 지녔다"며 "모바일 금융 혁신에 대해 열정을 갖고 패기있게 도전할 분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구독신청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